

오늘 순서

- 자기 소개
- 주제 발표: 45 분 정도
- 질의응답, 토론

공관복음(Synoptic Gospels)과 요한복음의 공통점

- 예수 초기사역(ministry)과 세례 요한;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;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분쟁;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처형; 부활이야기(예루살렘, 갈릴리)
- 그 외 행적—성전도전/타파, 관리의 아들을 고침, 오병이어, 물 위를 걸음 등.

주요 차이점

1. 구조적 차이. 공관복음: 갈릴리 사역(ministry) 이후 예루살렘 입성, 분쟁, 처형. 요한복음: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왕복/반복 (2:13; 5:1; 7:10) ; 최소 3 번의 유월절(2:13; 6:4; 11:55). Cf. 5:1; 10:22 => 요한복음은 3 년간의 공생애 기간; 공관복음은 1 년 이내.
2. 문학적 차이. Less action more talk. No single exorcism reported. 예수의 행위/능력은 기적(δύναμις)이 아닌 표적, sign(σημείον)=> 상징적, 신화적 의미. 사건이 주요 담화로 발전. 예. 니고데모와 중생(3 장); 오병이어와 ‘하늘로부터 내린 떡’(6 장); Farewell discourse (13-17 장)
3.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없다=> 태초부터 계신 이(pre-existence before birth. high Christology); 예수의 사역(ministry)과 세례요한의 사역이 공존 (cf. 막 1:14; 요 3:22-23)
4. 열 두 제자에 관해
 - 처음 4 명은 요한의 제자: 안드레, 베드로, 빌립, 바델로메(1:35-51)
 - “예수의 사랑하는 제자”(19:35; 21:24, cf. 13:23; 19:25-27)=> eyewitness testimony (소위 열두 제자와 차별화?); 이와 관련해 사도(apostle, ἀπόστολος)라는 말이 없다. 요 13:16 은 “보냄을 받은 자”(messenger)와 “보낸 자”에 대한 비유로 소위 12 사도와는 다른 의미.
5. 성만찬 예식이 없다=> 제자들의 발을 씻음 (요 13 장); Last supper is not passover meal.
6. 십자가처형.
 - 공관복음: 유월절 날 처형. 유월절 양이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날(막 14:12)에는=> 최후의 만찬=유월절 식사 (막 14:12; 마 26:2; 눅 22:15)
 - 요한복음: 유월절 하루 전, 예비일(요 19:14-18, 31, 42; cf. 13:1)에 처형. Symbolism=>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이해됨 (요 1:29, “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”).
7. 공관복음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, 하느님 나라와 회개다. 그런데, 하느님나라/천국에 관한 말이 요한복음에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며(요 3:3, 5; “my kingdom” in 18:36), 회개(repent, repentance)라는 말 또한 없다. cf. “하느님 나라”는 공관복음에만 51 번. “천국”은 마태복음에만 32 번. 요한복음=> 생명, 빛, 영광, 진리, 아들, 진리의 영...

요한복음 기록과 편집

1. 저자가 누군지는 모른다. 세베대 아들 요한 vs. 장로 요한 (요한 2 서, 3 서)
2. 편집: 2 개의 맺음말(20:30-31; 21:24-25); 14 장과 15 장 연결고리(14:31 에서 18:1 로?); 6 장의 위치 (4, 6, 5, 7 장 순?=> cf. 5:15-16 & 7:19-25)
 - 역사적 예수에 대한 memoirs(예수의 사역과 죽음)
 - 초기 예수공동체와 유대공회의 분쟁 (Jesus vs. Jews)=> 예수 제자들 모임
 - 유대공회와의 분리(출교, ἀποσυνάγωγος 9:22; 12:42; 16:2)=> 요한공동체 반영 (farewell discourse, etc). 바리새인을 제외한 어떤 유대 집단/종파(사두개파, 젤롯,

헤롯당원, 서기관)도 등장하지 않음. *Amidah* 기도문 12 번째 항목인 *Birkat ha-minim* (“Blessings of Heretics”)에 Nazarenes(Christians)을 지명.

- 마지막 편집: 21 장/서문(1:1-18), 요한 서신들, farewell discourses/prayers(15-17 장)=> “사랑하는 제자” 사후

로고스에 관해

1. 헬라사상과 연결시켜 가능한 이야기. 그렇다고 출처를 에베소와 같은 팔레스타인 바깥지역으로 확정지을 필요는 없다.
2. 유대사상과 연결해서=> 잠언, 솔로몬 지혜서, 사해문서 등에 이와 비슷한 사상이 등장(잠 8:22; 지혜서 9:1-2; *Community Rule* 1QS 3:17-24—“세상, 영, 생명”; “진리와 거짓”; “빛과 어둠”)

요한복음과 영지주의

1. 이레네우스(Irenaeus, 2 세기) 이전까지는 요한복음이 영지주의 색채(gnostic traits)를 띠고 있다는 생각에 다소 문제시했으나, 이레네우스는 요한복음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 요한복음을 옹호함. 이 후 정경에 등록.
2. 2-3 세기에 성행했던 영지주의는 요한복음에 드러난 초기영지주의 색채(traits)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는 있으나, 그렇다고 요한복음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 만큼 1 세기 영지주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(anachronistic).
3. 분명한 것은 1 세기 기독교는 당시 유대, 헬라 사상의 영향 아래 여러 형태(종파, denominations)를 지녔기에,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들 또한 이런 여러 다른 사상적/신학적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이다.

예수, 성령의 관계

1. 공관복음에서 성령/영은 하느님의 영(cf. 막 1:10-12); 요한복음에서 성령/영은 예수의 영.
2. 재림과 관련해서. 공관복음의 재림 약속(마태 24-25 장; 마가 13 장; 누가 21 장)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임재로 대체(14:1-4; 16:16-19)=> 보혜사 성령(παράκλητος 14:16, 26; 15:26; 16:7; cf. 7:39)
3.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은 더 이상 지상의/역사적 예수의 말이 아닌, 이미 영광을 받으신 예수의 말 (고로, 십자가 상에서 고통의 모습은 없다!).
4. 정경으로서 요한복음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더 이상 유대교회(당시 지도층)와의 분쟁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더 이상 지상에 현존하지 않는 예수와 여전히 교통할 수 있을까(accessibility)에 관한 문제다.
5. 또한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령은 요한복음에 드러난 증거(μαρτυρία witnesseses, 19:35; 21:24)를 통해 알 수 있으며,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(길, 진리, 생명 14:6). 역설적으로 요한복음의 증거를 떠난 성령이란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주장이다. 요한복음 저자의 말은 곧 보혜사 성령의 말이다. 당시 교회(요한복음의 예수공동체)를 향한 “생명의 말씀”이다.

생각해 보기

1. 공관복음에 있는 이야기 중 요한복음에 없는 것은?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무엇이/어떻게 다른가?
2. 오늘의 말씀. 요한 복음 in a nutshell: “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”(요 15:12).